

최수열 × 서울시국악관현악단

Re-프로젝트

장단의 재발견

2025. 6. 26.(목) 19:30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서울시국악관현악단

한국의 혼이 담긴
선율의 현대적 어울림,
전통과 현대를 잇고
미래로 흐르다

서울시국악관현악단은

1965년 국악관현악의 현대화·대중화·세계화를 목표로
창단된 대한민국 최초의 국악관현악단입니다.

창작과 재해석을 통해 전통음악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다양한 국악 관현악 레퍼토리를 선보이며
한국 음악계 발전에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다채로운 관현악곡과 협주곡, 실내악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작품을 연주하고 있으며,
국내외 다양한 아티스트와의 협업을 통해
대중성과 동시대성을 아우르는 무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음악의 예술성과 감동을 시민들과 나누며
국악관현악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시국악관현악단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예술의 가교로서 동시대 관객과 공명하고,
우리의 삶과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질문을 던지며
시대와 역사에 응답하고자 합니다.

PROGRAM

1부

합주곡 3번

김희조 작곡

지휘자와 위촉 작곡가의 작품 이야기

2부

Unselected Ambient loops 25-25

*위촉 초연

이하느리 작곡

지휘
최수열





서울시국악관현악단
수석 객원지휘자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관현악과 교수
코리아챔버오케스트라 수석 객원지휘자
부산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2017-2023)
서울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2014-2017)

합주곡 3번

김희조 작곡

1987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위촉으로
완성한 작품이다. 전통 장단의 다양한 변화를
바탕으로 국악의 정체성을 관현악적으로
풀어낸다. 단악장으로 구성되며, 확장된 론도
형식(A-B-C-A'-D-E-A") 속에서 유려한
선율과 장단의 리듬감이 전개된다. 대금과
양금의 이중주로 시작해 다양한 국악기들이
주선율을 잇고, 특히 태평소와 타악기의 힘찬
전개는 협주곡적인 절정을 이룬다. 전통성과
현대적 구성이 조화를 이루는 대표적인 국악
관현악 작품으로 오늘날까지도 자주 연주된다.

Unselected Ambient loops 25-25

이하느리 작곡

제목은 Aphex Twin의 "Selected Ambient Works" 시리즈를 오마주한 것으로, 이번 곡에서 다뤄지는 루프들이 그간의 작업 과정에서 '선택되지 않았던' 아이디어들이라는 점, 그리고 2025년부터 2025년 사이에 만들어진 루프라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

전통 국악기의 고유한 물성과 음향적 잠재력을 탐구하는 데 집중하였으며, 각 루프는 이질적인 시간 감각 속에서 빠격이며 맞물리고, 때로는 의도적으로 어긋난다. 반복 속의 일탈, 일탈 속의 질서를 통해 '루프'라는 개념이 단지 기계적 반복이 아닌 살아 있는 유기체처럼 작동할 수 있음을 제안한다.

위촉 작곡가
이하느리



이하느리는 2006년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초등학교 2학년 때 스크리아빈의 음악을 처음 접하며 작곡에 대한 열정을 키웠다. 예원학교를 졸업과 동시에 한국예술영재교육원을 수료했으며, 현재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2학년에 재학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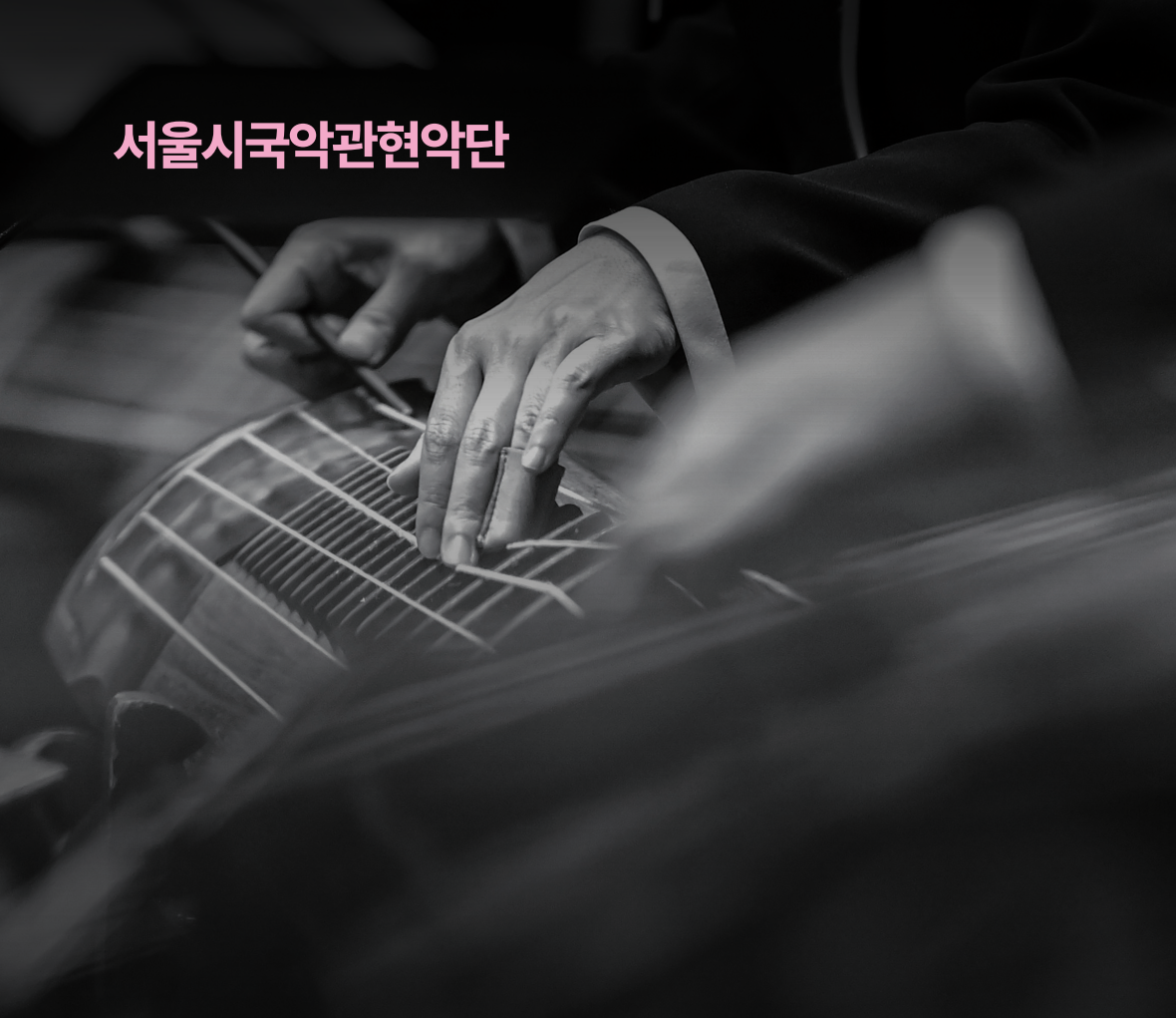
그는 Bartók World Composition Competition(헝가리) 1위, 중앙음악콩쿠르 작곡 부문 1위, Ensemble the Bridge 공모전 당선, 창악회 콩쿠르 우수상 등 국내외 주요 콩쿠르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IDEA(International Divertimento Ensemble Academy), 대구국제현대음악제 등 다양한 음악제에도 참가하며 활동의 폭을 넓혀왔다. 또한 재단법인 중앙화동재단이 주관하는 제16회 홍진기 창조인 상을 수상하며 유망한 창작자로서의 역량을 인정받았다.

그의 작품은 London Sinfonietta, IEMA Ensemble, Divertimento Ensemble, Ensemble Flex, Ensemble TIMF, Project Ensemble 'O', Mikhail Bouzine, József Balog 등 국내외 유수의 단체 및 연주자들에 의해 연주되었으며, 향후 공연도 예정되어 있다. 최근에는 한국영화아카데미(KAFA)와 협업해 영화음악 작업에도 참여하며 창작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2025년 6월, 서울시국악관현악단 상주작곡가로 위촉되어 장르와 경계를 넘나드는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하느리는 특정한 이야기나 개념보다는 악기 고유의 음향적 특성과 제스처를 통해 악기 간의 소리 관계를 탐구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작곡 과정에서는 음표와 쉼표, 결과로 얻어지는 소리에 집중하며, 소리 자체가 그의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서울시국악관현악단



단장	이승훈
악장	김애라
가야금	홍세린 수석 이주은 부수석 최인영 이지연 윤지현
거문고	한나리 수석 김선호 부수석 김영임 김일호 정하은
대금	이나래 수석 변제남 김진성 김혜연 강정아 김희정 김가현 객원
소금	권용미 부수석
해금	김현희 수석 서은영 부수석 김민숙 용은정 정현지
피리	성시영 수석 전소영 부수석 박경미 민성치 권혜림 권도윤 태평소 황다능 생황 이현지 객원
아쟁	김민정 수석 김상훈 부수석 김소형 김수진
타악	최종희 수석 남동현 부수석 허일두 박환빛누리 김태형 김영은 객원
양금	안 진 객원
총무	김희정
악보	이의영
악기	한연호

(재)세종문화회관

사장 안호상

공연예술본부장 문경아

공연제작2팀

팀장 김아림
팀원 채준식 이지향 이현주
채수경 신기루 류성광
김보름 이혜민

공연장운영팀

팀장 김지민
팀원 강보경 최병훈 이정연
임아라 강민재 강민선
김지성 구지휴 최민주
이연서 차주윤 김지연
유혜리 이보람

공연DX팀

팀장 김여향
팀원 강봉진 조계성 배유진
하수정 유정아 류다혜
박세현 진푸름 서경은

무대기술팀

팀장 김수현
책임안전관리자 이종덕
무대감독 이민재 유병근 이기훈
장연희 정보배 김동현
김동균 이 준 주무형
전새미 송은지

무대기계 안종철 김상두 서민원
김 정 박정길 전해연
이민우 유지수 서동진

음향 김우림 조영진 이효원
강병권 김경민 채소영
남윤수 김단경 박창순
최은식

조명 노준식 김학철 조현권
김 권 설정식 김정태
양용환 변호연 김태진

영상 배준호 한완주 장인표
류병현

의상소품 변미라 천지연 곽내영
무대형정 민제희

커뮤니케이션팀

팀장 김화영
팀원 김석경 윤문성 신대섭
손귀영 한채현 이재효

서울시국악관현악단

차기 공연 안내

실내악 시리즈

소리섬 : 시대와 함께한 아리랑

7. 25(금)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

수상음악 프로젝트

웨이브

8. 29(금)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믹스드 오케스트라

넥스트 레벨

11. 21(금)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S e J o n g 2 e a s o 5

sejongsi

예술감독
연주

이승철
SMTOWN 앙상블



2025.
7.25Fri

Chamber Music Series
실내악 시리즈
소리섬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

서울시국악관현악단



S e J o n g
e a s o
25 세 종 시 존



예술감독 지휘 이승철
연주 서울시국악관현악단

WAVE : Water Music Project

2025.
8.29Fri

수상음악 프로젝트

웨이브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서울시국악관현악단



